

F-01 중년 재무건강과 은퇴준비 격차

순자산의 크기보다 은퇴 뒤 필요한 현금흐름과 준비된 소득의 차이를 확인합니다.

학습자용

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·비교·행동·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

판본 1.0.0 · 기준일 2026-09-01 · 다음 점검 2026-12-01

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·신청·세금·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.

1. 왜 배우는가

소득이 높은 시기에 주택과 퇴직급여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은퇴 뒤 생활비를 바로 만들기 어렵습니다. 예상생활비와 연금·금융자산의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.

은퇴준비 격차는 목표생활비에서 예상되는 안정적 소득과 인출가능자금을 뺀 차이입니다. 기대수익률 하나로 계산하지 않고 물가·기간·세금·건강비·소득중단을 나눠 봅니다.

2. 먼저 알아야 할 말

은퇴준비 격차

은퇴 뒤 필요한 자금과 준비된 소득·자산 사이의 차이입니다.

생활 예: 필수생활비와 선택생활비를 따로 계산합니다.

소득대체

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자리를 연금·사업·자산소득 등이 채우는 구조입니다.

생활 예: 연금 개시 전후의 소득원을 연도별로 놓습니다.

실질가치

물가변화를 반영한 돈의 구매력입니다.

생활 예: 10년 뒤 같은 생활을 위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.

3. 판단 순서

- 1단계. 은퇴 예상시점과 계획기간을 정한다
- 2단계. 필수·선택·비상 생활비를 구분한다
- 3단계. 연금·근로·사업·자산소득의 시작과 종료를 적는다
- 4단계. 주택 등 비유동자산과 인출가능자산을 나눈다
- 5단계. 격차를 줄일 저축·부채·은퇴시점 대안을 비교한다

4. 맞는 예와 반대 예

비교 1

맞는 접근: 연도별 생활비와 소득의 시작·종료를 함께 표시한다

반대 접근: 퇴직금과 현재 금융자산 총액만 더한다

이유: 은퇴위험은 총액뿐 아니라 필요한 시점의 현금흐름에서 생깁니다.

비교 2

맞는 접근: 수익률·물가·수명 가정을 바꿔 결과범위를 본다

반대 접근: 가장 기대되는 수익률 하나로 부족액을 계산한다

이유: 장기간의 가정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단일 예측을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.

5. 내가 해 보기

가상 중년가구의 자산·연금·부채·생활비 자료로 연도별 은퇴현금흐름과 준비격차를 작성합니다.

-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.
- 비용·위험·권리·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.
- 결정과 이유,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.

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. 실제 소득·자산·부채·계좌번호·가족갈등·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.

6. 문제가 생겼다면

- 추가 송금·서명·해지·앱 조작을 멈춥니다.
- 계약서·설명서·화면·대화·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
-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
- 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132 대한법률구조공단

7. 오늘의 한 행동

내 예상 은퇴연도와 연금이 처음 들어오는 연도를 한 줄에 표시합니다.

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

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

<https://www.nps.or.kr/pbcpgdnc/mainbiz/getOHAG0059M0.do>

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정보

<https://csa.nps.or.kr/ohke/rtpdntinfo/fnc1/UHKE0301M0.do>

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

<https://csa.nps.or.kr/ohkd/ntpsidnty/anpnctng/UHKD7701M0.do>

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·세금·법률·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.